위키미디어 2030 전략, 그리고 Sum of all Knowledge 끌어들이기

[[사:Ellif]] / 2017. 10.14

Intro

“Imagine a world in which every single human being can freely share in the sum of all knowledge. That's our commitment.”

들어가며: 문제 제기

- 모든 문제의 근원 : **위키백과가 '백과사전'이라는 믿음**
- 결과
  - 극도로 적대적인(hostile) 한국어 위키미디어 공동체
  - 전문가=권위주의, 삭제주의
  - [[백:쫓]]이 소용 없다
- 2015년 전략(V/S2015), 2030년 전략(V/S2030)에 대한 낮은 관심
- 위키미디어 운동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낮은 관심

S2015 : 전조 (링크)

전략 우선순위

- 인프라스트럭처 안정화(Stabilize infrastructure)
- 참여 증대 (Increase participation)
- 질 개선 (Improve quality)
- 전달력 증대 (Increase reach)
- 혁신 격려 (Encourage innovation)

수치적 목표

- 서비스 제공 인원 : 10억 명
- 총 위키백과 문서 수 : 5000만 개
- 높거나 매우 높은 질의 문서 비율 : >=25%
- 월 5개 이상 편집자 수 : 20만 명
- 여성 편집자 : >=25%, 남반구 편집자 >=37%

S2015의 한계

- 분명한 목표와 수치가 있었지만 공동체 내 인지도가 매우 낮았음
- 우선순위의 잘못 : Infra적 개발 목표 > 공동체 문화
- S2015와 반대되는 정책적 결정
  - Chapter 승시 기준 상향 (2013년 11월 재단 이사회)
    - 결의 이후 방글라데시, 벨기에만 통과, 2014년 이후 승인 지부 없음

Wikimedia 2030 Strategy

- V2015 이후 공식 전략 수립을 위해 2017. 1부터 수립 시작
- 단계
  - Stage 1 - 3. 14 ~ 4. 18 (KWA 참여)
    - “앞으로 15년동안 함께 무엇을 구축하거나 이룩하고 싶은가?” 에 대한 선언 수집
    - 주제 : 콘텐츠, 공동체, 협력, 확장-인식개선, 사용자-편집자-기여자, 기능(feature), 혁신, 나타나는 공동체, 가치, 기관, 교육, 지식, 지속가능성-성장(13개)
  - Stage 2 - 5. 11 ~ 6.12 (KWA 참여)
    - 현재 상황에 대한 핵심 인사이트 서술문 수집
    - 주제: 건강한 공동체, 증강 세대(Augmented age) , 진정한 국제 운동, 신뢰할만한 지식 출처, 지식생태계(5개)

Wikimedia 2030 Strategy Stage 3

- Stage 3 - 7. 1 ~ 7. 31
  - 5가지의 도전과제에 대한 토론
  - 1주차 : 어떻게 우리 공동체와 콘텐츠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연관되게 머무르도록 할 수 있는가?
    - **서구형 백과사전 모델**은 더 이상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진화하는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
    - 전세계적으로 지식 공유가 매우 사회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 2주차 : 다수의 [지식]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확인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모든 지식의 총합(Sum of all Knowledge)을 잡을 수(Capture) 있을까?
    - 세계의 지식 중 다수가 우리 사이트에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이것들은 출처들을 통합하고 확인하는 새로운 방식을 요구한다.
    - 신뢰가능한 정보의 발견과 공유는 역사적으로 진보해 왔다.

Wikimedia 2030 Strategy Stage 3

- 3주차 : 2030년을 바라보는 위키미디어가 늘어나는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잘못된 정보들의 트랜드가 늘어나고 있으며, 위키미디어인들이 신뢰할만한 가치를 지닌(truthworthy) 지식의 출처를 찾기 위한 능력에 도전이 될 수 있다.
- 4주차 : 어떻게 위키미디어가 지식의 생성, 프레젠테이션, 배포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계속] 유용할 수 있을까?
  - 모바일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제품들도 진화하며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기술]들이 우리가 지식을 만들고, 나타내며, 배포하는 방식을 변화할 것이다.
- 5주차: 어떻게 위키미디어가 향후 15년동안 [벌어질] 중대한 인구 변동을 겪을 세계 속에서 현재 독자와 예상 독자의 욕구를 충족할 것인가?
  - 세계 인구가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위키미디어 운동은 더 많은 장소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 위키백과가 가장 활성화된 7개국의 독자들이 위키백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재정은 어떤지, 어떻게 콘텐츠가 생성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

The direction (최종)

우리의 전략 목표 : 서비스와 공평

- 2030년에, 위키미디어는 자유 지식 생태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며,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된다.
- 우리 위키미디어 기여자, 공동체와 조직들은, 인간[이 가진] 다양성을 충분히 드러내는 지식들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 구조를 구축함으로서 우리의 세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 우리는 과거에 해온 것처럼 콘텐츠를 발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계속 수행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The Direction (최종)

- **서비스로서의 지식:** 우리는 인터페이스와 커뮤니티를 넘어 자유 지식을 우리 사용자들을 위해 세상에 공급(serve)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위키미디어 너머에서 자유 지식을 조성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의 협력자들과 파트너들을 위한 도구를 작성한다. 우리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우리와 다른 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모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지식공평성:** 사회운동으로서, 우리는 권력구조와 특권 구조에서 떨어져 나간 지식들과 커뮤니티들에 대해 우리의 노력을 집중한다. 우리는 강력하고 다양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자유 지식에 접근하고 기여하는 것을 막는 사회적, 정치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다.

The Direction (최종)

- **추론: 왜 우리는 이 전략 목표로 움직이게 되는가?**
  - 우리가 모두 원하는 '열망'
  - 우리가 바꾸지 말아야 하는 '위키미디어의 강점' (S)
  - 우리가 개선해야만 하는 '위키미디어의 한계' (W)
  - 위키미디어 너머: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인가 (O-T)
  - 더욱 공정하고 연결된 미래 (결론)

The Direction (최종)

- 우리가 개선해야만 하는 '위키미디어의 한계'
  - 아직까지 우리는 모든 지식의 총합(sum of all knowledge)을 모으는 것에서 거리가 멀다. 우리가 만들어낸 대부분의 콘텐츠는 오래된 형태의 백과사전 항목들과 이미지만 포함하고 있어, 다른 지식 유형들을 버려두고 있다. 현재 **우리의 공동체들은, 특히 젠더의 경우를 포함해 인류가 [지닌] 다양성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재현성과 다양성의 부족은 **지식격차와 체계적 편향**을 만들어내 왔다. (…)
  - 협력에 있어서, 위키미디어 공동체에 들어오거나 참여하는 [행동]이 도전이 될 수 있다. **초기 몇 년간 낮았던 출입 장벽이 지금은 많은 새내기들이 넘을 수 없게 [높아졌]다**. **몇몇 공동체와 문화, 그리고 소수자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배제에 시달려 왔다. 가시 돋친(toxic) 행동들과 괴롭힘**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 우리의 성공은 압도적인 수의 점검과 모니터링을 만들어 냈으며, 우리는 선의를 가진 공동체 구성원들을 쫓아낸 이러한 도전들을 도구와 관습들을 통해 다뤄왔다. (…) 우리 운동의 구조는 종종 불투명하고 집중화됐으며, 들어가는데 있어서 높은 장벽을 갖추고 있다.

The Direction (최종)

결과: 2030년까지의 우리의 방향

- 우리는 지식을 통해 이 세계를 증진한다.
- 우리는 콘텐츠 발전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지속한다.
- 서비스로서의 지식: 개방된 지식을 전 세계의 모든 인터페이스와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플랫폼
  - 우리는 위키미디어 너머 있는 자유로운 지식을 조직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협력자들과 파트너들을 위한 도구를 구축한다.
  - 우리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우리와 다른 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유롭고, 신뢰 가능한 지식을 모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식공평성: 권력 및 특권 구조에서 떨어져 나간 지식과 공동체
  - 우리는 강력하고 다양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한다.
  - 우리는 지식에 접근하고 기여하는 것을 막는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장벽을 철거한다.

The Direction (최종)

- 지식공평성: 권력 및 특권 구조에서 떨어져 나간 지식과 공동체
  - 우리는 위키미디어 운동 속의 사람들과 지식들이 공정한 재현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항하고자 투쟁한다. 우리는 특히 우리 운동 속에서 **젠더 차이를 줄이[고] 종식하고자** 노력한다. 우리 생산물과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은 자원에 대한 공정한 배분에 기반할 것이다. 우리의 구조와 거버넌스는 우리 운동의 모든 사람들의 공정한 참여에 의존할 것이다. 우리는 산업화된 국가들 속의 원주민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세계 지역들 같이 [위키미디어 운동이] 덜 제공된 지역사회에 특별한 초점을 두고, 전 세계에 위키미디어의 존재를 확장한다.

The Direction (최종)

- 우리는 강력하고 다양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모든 배경에서 온 사람**들을 환영한다.
  - 우리는 **기여가 즐겁고 보람찬 환대성(hospitality)의 문화**를 만든다. 우리는 선의로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존중하는 협업과 건강한 토론을 실천한다. 우리는 **언어와 지리, 민족, 수입, 교육, 젠더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나이** 등등의 넓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우리 운동에 환영한다. 공동체의 정의에는 편집자에서 기부자, 조직자 등을 [포함해], 우리가 자유롭고 개방된 지식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하는 많은 역할들이 포함될 것이다.

The Direction (최종)

- 우리는 지식에 접근하고 기여하는 것을 막는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장벽을 철거한다.
  - 우리는 자유 지식이 사람이 있는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검열과 통제, 잘못된 정보**에 대항한다. 우리는 우리 사용자들과 기여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수호한다. 우리는 누구나 **괴롭힘과 편견 없이 자유롭게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양성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지식의 창작과 큐레이션, 보급을 증대하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변호자이자 파트너가 된다.

V2030 결정문 요약

	서비스	지식평등성
목표	❖ 지식의 양 증대 ❖ 기여 지속 ❖ 지식의 접근권 증대 ❖ 비보급지역 보급 방안 개선 ❖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 다플랫폼/ 최신 기술 대응 ❖ 협력 파트너십 구축 ❖ 분산구조, 협력자, 파트너	❖ 구조적 불평등 종식 투쟁 ❖ 공동체 투명화 ❖ 공동체의 다양화 ❖ 소수자 커뮤니티 배려 ❖ 젠더차이 종식 ❖ 환대하는 문화 ❖ 괴롭힘과 편견 철폐 ❖ 검열-통제 대항 ❖ 자유저작권 진영 선도
방해요소	❖ 세계적 변화 ❖ 4차산업에 따른 기술 발전	❖ 구성원의 단일성 (다양성 불인정) ❖ 내부의 공격적 문화

V2030의 결과

- Sum of all Knowledge 재규정
  - 비정형적인 출처가 포함될 수 있어야 Sum of all Knowledge!
  -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의 의견 전체가 포함돼야 Sum of all Knowledge!

- **배제와 괴롭힘, 편견** →
  지식 격차, 체계적 편향, 구조적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
- 젠더-소수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공언
- 내부 문화의 문제를
  외부적 도전과 **동일하거나 더 큰 중요성**을 가지고 인지하고 있음

한국어 위키백과는?

- 관리자 권위주의
- 삭제우선주의

- 비권위에 대한 편견 - ‘일반인, 권위’ 우위성
- 종교/신학에 대한 편견
- 여성/여성학에 대한 편견
- 장애인에 대한 편견

관리자 권위주의

- 관리자에 대한 권위 부여 - 관선 2/3과 철저한 청문회
- “관리자가 많은데 뭐하러 관리자를 더 뽑나?”

- V2030 기준을 맞추기 위한 제안
  - 관리자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시화**해야
  - 관리자 선거 기준 (최소) 1/2~11/20선 기준으로 하향
  - **다양한 배경을 가진 편집자가 사용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리 활동에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WMF 차원 정책 구축
  - 무활동 관리자의 적극적인 권한 회수 필요

삭제 우선주의

- 홍보 문서, 저작권 위반은 차치하더라도
- 관리자 권위주의와 결합해 kowp를 닫힌 공동체로 만듦
- [[백:아님#미래]]의 남발
- 문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 삭신/삭토부터 거는 관행
- **위키백과가 백과사전이라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음
  - '백과사전'은 다듬어져야 한다는 믿음

- V2030 기준을 맞추기 위한 제안
  - **불필요해 보이는 내용**이더라도 Sum of knowledge에 반하지 않는다면 규제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정책 필요 (불필요한 삭제 최소한)
  - '백과사전'에 대한 믿음 폐기

비권위에 대한 편견

- “일반인이 보기에 불편하므로”
- “**대한민국** 정부 규정에 반대되므로” - [[백:아님#국가]]와 정반
- “학회가 이러고 있으므로”

- ‘일반인’이라는 확인 불가능한 요소가 정당화에 사용
- 선입견에 따라 자신의 지-논리와 ‘다른 것’이 존재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
- S2030의 ‘검열, 통제’ 배척과 반대되는 편견
- 근본 정책과 반대되는 결정이 빈번히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

종교에 대한 편견

- “위키백과에서 종교를 다룰 때 종교학이 신학보다 우월하다”
- “신학은 객관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없다”
- “창조론 등의 유사과학은 무조건적으로 반박되어야 한다”

- ‘종교와 상관없이’ 편집자들을 포괄시켜야 하는 V2030과 배치
- 편집패턴이 삭제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최대한 종교의 입장도 NPOV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신학도 객관적인 학문이고,
  3자 검증된 다수의 [[백:신뢰/출처]]를 포괄하고 있음

여성/여성학에 대한 편견

- “여성학은 객관적인 학문이 아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에서 인용될 수 없다”
-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사상을 담고 있다”
- “여성이 위키백과를 편집 안하고나서 왜 문제를 제기하나?”

- 상당수의 한국어 편집자가
  S2030을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음
-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식해야 한다**!
- KWA/WSK의 페미니즘 에디터톤은 고무적이며,
  S2030의 양 측면을 충족한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함

장애인에 대한 편견

- 꽤 깊고 심각한 위키미디어 운동내 차별
- 심지어 V2030 결정문에도 언급되지 않음
- WMF: 신체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 UX-편집 참여 관련 연구 전무
- 한국어 위키백과 :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괴롭힘 존재

- S2015-S2030에 명백히 반대되는 행동
  - WMF의 인식 개선과 연구 착수 필요
  - 위키미디어 운동 내 자조(Self-advocacy) 운동의 필요성

나가며 : S2030이 희망이다!

- S2030이 끼칠 영향력은 생각보다 방대할 것
- Sum of All Knowledge를 구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화
- 이번 결정문이 "백과사전의 항목 작성"을 거부하지 않지만, **Rigid한 전문가적 스타일의 백과사전의 거부**라는 점이 포인트
  : Rigid encyclopedia & inclusive participation can't coexist
- "**위키백과는 (브리태니커와 같이 전문가의 검증된 지식으로만 차 있으며 적극적으로 통제되는) 백과사전이 아니다.**"
- '집단지성 위키'로서의 위키백과
- V2030이 위키백과 공동체에 보다 더 인지되고, **사용자들이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치** 필요

"What brings us together is not what we do; it's *why* we do it."

- V2030 Direction

감사합니다.